

전주매일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음 9월 6일) 제191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0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국회 교문위 전북대-전북대병원 국정감사

치료거부 두살배기 사망 사건 '맹공'

"병원 측 안일한 대처가 원인" 의원들 질타에 병원장 '곤욕' 김민기 의원 "시스템 있더라도 직원들이 이해하지 못한 탓"

24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 5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두살배기 아이가 수술할 병원을 13곳이나 찾아 헤매다 숨진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강명재 전북대병원장이 곤욕을 치렀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이날 "지난해 교통사고로 두살배기 중증 외상 쇼크환자인 김모(2)군과 그의 할머니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전북대병원의 안일한 조치로 이들 모두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김군은 지난해 9월 30일 전주시에 한 건널목에서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잘못된 진단과 꼭 찬 수술실 탓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졌다.

당시 전원 요청을 받은 전남대병원도 골반골절 등 환자의 상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전달했음에도 김군을 중증 외상 환자로 판단하지 않고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13개 의료기관 모두 김군을 받지 않았고 사고 후 7시간 만에 경



24일 전북대와 전북대병원 등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렸다.

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김군의 할머니도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 자리에서 손 의원은 "누가 가장 책임이 있느냐"라며 "순서대로 3명만 잘못된 사람을 말하라"고 강병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병원장은 "우선 연락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전공의가 첫 번째로 잘못했고, 대면 진료를 하지 않은 당직 전문의, 그 다음은 병원 정이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강 병원장의 답변에 대해 "1년이 지난 지금도 강 병원장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가장 늦게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 병원장은 "병원장인 제 책임이 가장 크다"라며 "잘못 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또 관련 의료진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의 현지실사에서 개인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병원 측에서 담당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다를 게 없다"면서 "또다시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보낸 것은 문제가 많다"며 "당직 전문의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해야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정

형외과 전공의가 전원조정센터를 인지지 못해 각 병원의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한 것도 가장 큰 문제다"라며 "각 병원 대표번호로 하다보니 충남대병원의 경우 전원 의뢰를 받은 수신자를 찾을 수 없었고, 일부 병원들도 전원 의뢰를 받은 근무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두 살배기를 숨지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전공의 간 폭행 "가해자는 겨우 징적 1개월" 병원 측 솜방망이 처벌 지적

최근 불거진 전공의 간 폭행·금품갈취 사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욕설과 함께 폭행까지 당했다"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품갈취에 열차려, 왕따, 휴일없는 근무 등 장기간에 걸쳐 온갖 가혹행위가 이뤄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전공의가 심리상담 요청을 했는데 상담을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사직까지 하게 됐다"면서 "피해자는 병원을 그만뒀는데 가해자는 겨우 징적 1개월이란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조치냐"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공의 폭행' 전북대병원 2년간 정원 감축

보건복지부가 병원내 전공의에 대한 폭행이 발생한 전북대병원에 앞으로 2년간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첫 행정처분 사례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내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폭행피해자인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한 후, 7월 5, 28일 2차례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자료 허위작성,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상급년차의 임의 당직명령 등의 사실을 확인했고, 복지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8월 25일,

복지부, 과태료 100만원 부과 입사 전 근무지시 금지 등 수련환경 개선도 지시

10월20일 2차례 수련환경평가 위원회 심의와 9월22일 전북대병원 의견청취를 거쳐 행정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전북대는 이에 따라 2018~2019년도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올해 기준 3명)을 책정하지 않으며, 인턴 정원의 경우 기준(올해 44명) 대비 5% 감원된다. 복지부는 다만 2019년 전공의의 정원은 2018년 수련환경평가 및 개선사항 이행점검에서 개선이 확인될 경우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수련환경 개선도 지시했다.

개선사항은 ▲전공의 채용을 조건으로 한 입사 전 근무지시 금지 ▲전공의별 수련 스케줄 체계적 관리 ▲전공의간 임의당직 지시 금지 ▲기존 정형외과 전공의의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수련 요청 시 병원은 적극 협조 ▲항후 3년 간 수련규칙이행여부 현지평가 실시 ▲병원 자체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계획서 제출 등이다. /뉴스

전북, 기초학력 미달률 3년 연속 전국 최고

도교육청 국감서... 학생 비율 5.49%로 전국 평균치보다 높아
문제 해결 예산은 올해 25억원으로 2013년 대비 14억원 삭감

청 평균인 3.95%, 전국 평균인 3.50%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심하게 3년 연속으로 17위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2015년도와 2016년도 사이 전체 학생수는 2만2,834명에서 2만4,122명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과 영어의 미달 학생 수가 각각 1,470명, 1,370명으로 오히려 증가한

점이다. 이처럼 전북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전북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목적으로 사용된 예산은 2013년 39억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의 경우 약 25억 원에 불과하다. 유 위원장은 "나무는 뿌리와 줄기가

튼튼하지 못하면 튼실한 열매를 맺기 어렵다"며,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기초학력이 충실하지 못하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창의적 산출도 생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3년 연속으로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전국 꼴찌라는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사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전북교육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전북도의 기초학력미달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중3 기준으로 전북의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은 5.49%로 전국 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

www.mj1614.com

1,614m 덕유산고랭지가 길러낸 **안전한 먹거리**

무주농산물

제3회 무주반디봉 농·특산물대축제
기간 : 2017. 11. 3.~11. 5. 장소 : 무주군 예체문화관 일원

muju 무주군
www.muju.go.kr